



잠자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1. 2. 23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
과 장 : 오 병 석
사무관 : 이 상 기
전 화 : 500-2325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없음

이 자료는 2011년 2월 24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가어항 기능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- 어항과 어장어촌 및 배후지역을 연계한 종합개발 -

- 농림수산식품부(장관 유정복)는 어촌지역 경제활성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「국가어항 기능활성화 방안」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- 어항은 그 동안 어선의 안전정박 등 수산업 기반시설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, 어선감척 및 WTO·DDA, FTA 등으로 대내외적인 수산업 여건이 변화되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 소득 증대 및 주 5일 근무정착 등으로 어촌관광 및 해양레저 활동을 위해 어항을 찾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한 어항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.
- 2005년부터 부산 대변항 등 13개항에 관광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어항을 개발하고 있으나 주변사업과의 연계부족 및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기대효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.
-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어항이 고유의 어업활동 지원은 물론 수산물 위판·가공·유통·판매·소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현대화된 수산물 종합처리시스템

(FPC¹⁾)을 어항내에 구축하고, 관광·문화·상업 기능을 겸비토록 하여 민간참여를 유도하며, 개별어항 위주의 개발에서 어장·어촌 및 배후지역을 아우르는 종합개발로 전환하여 어항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.

-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가어항 중에서 이용도와 개발 잠재력이 높아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 수행이 가능한 어항을 대상으로 어항기능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
- 시범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민간이 역할 분담하여 어항 개발에 공동 참여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어항주변의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어항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수익성 어항 시설사업에는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
- 또한, 시범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2월중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상반기 중 시·도별로 1개소씩 사업대상을 추천받아 전문가가 참여하는 어항개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2개소를 선정하고 금년 하반기에 개발계획수립 및 기본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.
-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, 어항을 직접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지여건에 부합되고 어항기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(안)을 직접 작성토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개발 및 사업효과 증대로 어촌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, 관광객 유치,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1) FPC(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Complex) : 수산물종합처리장